

## 문헌기록을 통해 본 桐溪 權達手의 節義와 그 의미\* \*\*

한 의 승\*\*\*

- I. 머리말
- II. 문헌기록에 기술된 桐溪 權達手
  - 1. 歷史書에 서술된 桐溪
  - 2. 筆記集에 포착된 桐溪
- III. 문헌기록을 통해 본 桐溪의 節義와 그 의미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상주 출신으로 그동안 학계에 잘 알려진 바 없었던 桐溪 權達手(1469~1504)라는 인물을 조명하려는 시도에 해당된다. 동계는 조선 시대 연산군 시절 홍문관 교리로 부조리한 권력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節義’의 상징으로 표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역사서와 필기집 등에 남아있는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절의가 문헌 속에 어떻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4042721)

\*\*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4일 상주문화원에서 『퇴재·동계 형제의 삶과 문학 세계』란 주제로 개최한 제14회 상주역사문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 lovehes@hanmail.net

게 발현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歷史書의 경우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기사가 총 36건으로 『燕山君日記』에 32건, 『中宗實錄』에 3건, 『英祖實錄』에 1건이 보인다.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것이 대부분으로 연산군에게 간언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기까지 과정이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외한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에 수록된 기사들은 사후 권달수에 대한 신원 추증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筆記集의 경우 金安老(1481~1537)의 『龍泉談寂記』, 李廷馨(1549~1607)의 『東閣雜記』, 魚叔權(미상)의 『稗官雜記』,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 등에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이들 기록에 공통적으로 표상된 것은 절의였다. 이점은 권달수와 지기였던 용재 이행의 묘지명을 통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용재 이행은 묘지명에서 권달수와 그의 아내 정씨를 절의로 현창되는 당대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동계의 삶의 태도는 아내인 정씨에게 영향이 미쳐, 아내 또한 남편과 동지적 관계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함께 던진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행동을 추동케 한 밑바탕에는 동계의 절의 정신이 있으며, 그것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산생된 일종의 時雨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동계가 걸어온 삶의 궤적에서 자연스럽게 유로된 선비정신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해 드러난 동계 권달수의 절의와 그 의미를 조명한 것이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 조명되지 못한 인물이 도처에 존재한다. 남겨진 문헌 기록을 통해 그러한 인물을 발굴하고 생애를 조명하여, 삶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후속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桐溪 權達手, 문헌기록, 형상, 역사서, 필기집, 節義

## I. 머리말

조선시대 嶺南 지역은 士林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았다. 선조 사림파의 영수인 金宗直(1431~1492)을 필두로 鄭汝昌(1450~1504), 趙光祖(1482~1519)로 이어지는 사림파는 퇴계를 정점으로 찍으면서 퇴계학파로 확장, 발전된다. 이후 퇴계학파는 월촌 계열, 서애 계열, 학봉 계열 등으로 분화되면서 조선 중·후기 사상사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였다.<sup>1)</sup> 물론 1728년 이인좌의 난으로 인해 영남 남인은 조선후기 정계에서 실각하여 중앙정계로의 진출은 요원하게 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향촌사회에서 학문탐구에 몰두하여 사상적 탐색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퇴계학파에 대한 연구는 주로 17세기 이후 계열 분화 양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조선조 중후기를 관통하는 퇴계학파의 흐름과 분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16세기 퇴계를 정점으로 한 이후 시대를 주목한 것에 해당된다. 퇴계 이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문계의 동향이나 인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는 선초에서 16세기까지 영남 사림에 대한 연구가 앞서 언급한 점필재나 일두, 정암 등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방향을 달리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문 연구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생산적 논의를 제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역학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서있다. 이점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역학의 성과를 살펴보다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데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지역학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기왕에 역사학계에서 이뤄진 성과를 먼저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일

---

1) 퇴계학맥의 분화 양상에 대해서는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1~613쪽 참조.

상사,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지역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그 성과 또한 불만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에는 지역에 뿌리를 둔 증가에서 오랜 시간동안 대대로 전승되어 온 생생한 고문서 자료가 한 축을 차지한다.

지역의 유력 향반가들은 향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관계로 활동 가운데 주고 받았던 서간이나 문서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가문 중심으로 잘 전승해 왔다. 이러한 자료들로 인해 기존 문집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고문서라는 1차 자료를 통해 당대 지역의 실상과 인물들의 활동 양상이 생동감 있게 규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전문학계는 역사학계의 최근 논의와 1차 자료를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실증적 자료에 토대를 둔 지역학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문서와 같은 1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번역과 해제의 작업은 기초적이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물론 이에 대한 중요성은 진작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문중 내에서 조상의 역사나 뿌리와 관련된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중 여론의 문제와 자료를 제대로 보관,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 문제 등으로 인해 실상은 그다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 내 유력 문중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거점대학의 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三位一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글로컬시대에 지역학이 단순히 서울에 배경으로 존재하는 지역이 아닌 서울 또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지역성을 특색이자 중심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학은 이러한 과정들이 기저에 깔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먼저 살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대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을 발굴하고, 포착하여 전면화시키는 것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경상도 지역을 대표하던 도시는 慶尙道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慶州와 尙州이다. 경주는 과거 신라 천년을 대표했던 도시였고, 상주는 경북 내에서 안동과 함께 영남의 거읍으로 위상을 차지했던 곳

이었다.

특히 상주의 경우 경북을 대표하던 지역으로 특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후기에 편찬된 『嶺南人物考』를 살펴보면 수록된 인물이 安東 다음으로 많은 것에서 일정부분 확인된다.<sup>2)</sup> 이렇듯 상주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학 연구에서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역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물학으로 규정되는 연구 시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동학이라 명명할 경우 안동지역 인물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인물, 문화, 민속, 지리 등이 총망라된 지역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지역학은 인물 중심으로 연구된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영남학의 경우 역시 다수의 인물이 배출되거나 퇴계학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특정 인물 중심의 계보학이 지역학을 대신해 왔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문학 연구에서 상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상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가 상주한문학에 대한 종합연구서를 편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權泰乙의 『尙州漢文學』이다.<sup>3)</sup>

권태을의 『상주한문학』은 고대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상주의 학문적 전통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노작이다. 그의 저서에는 360여명의 작가와 240여종의 문집이 소개되어 있으며, 통시적 연구를 통해 『상주한문학』의 역사와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의미를 밝혔다. 이후 이구의

2) 정조 시대에 편찬된 『嶺南人物考』는 조선후기 영남 지역의 대표적 인물을 망라한 인물지로 대표된다. 『영남인물고』에 수록된 도시는 안동, 상주, 경주, 밀양, 신녕, 성주, 의성, 진주, 함양, 자인, 영천, 대구, 영주, 용궁, 하양, 진보 등 총 16개 지역이며, 그 가운데 안동이 144명, 상주가 78명을 차지하는 것에서 상주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진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영남인물고』에 대해서는 전병철, 『『영남인물고』 진주편 등재인물의 시기별 특징』, 『경남문화연구』32,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011, 149~169쪽; 한익승, 『『嶺南人物考』에 수록된 榮川지역 文人 研究』, 『한국선비연구』4,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6, 135~155쪽 참조.

3) 權泰乙, 『尙州漢文學』, 상주문화원, 2001, 1~698쪽.

에 의해 『상주한문학』의 성과에 대해 정리한 논문이 나오면서 상주의 지역성에 대한 의미는 한층 더 부각될 수 있었다.<sup>4)</sup>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과 인물 및 사상에 대한 후속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상주라는 지역이 경북 혹은 영남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만 같지 못하기 때문인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의 위상이 전에 비해 급전직하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학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게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상주지역 출신 문인 가운데 그동안 학계에 잘 알려진 바 없었던 桐溪 權達手(1469~1504)를 조명하고자 한다. 동계는 조선시대에 전반에 걸쳐 연산군 시절 홍문관 교리로 부조리한 권력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節義’의 상징이었다. 본고는 동계의 생애 있어서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절의’가 문헌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기록에 기술된 桐溪 權達手

### 1. 歷史書에 서술된 桐溪

관찬 역사서의 대표는 『朝鮮王朝實錄』을 들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권달수 관련 기사는 총 36건이다. 『燕山君日記』에 기록된 것이 32건, 『中宗實錄』에 기록된 것이 3건, 『英祖實錄』에 기록된 것이 1건이다.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것이 대다수인데 권달수가 연산군시기의 인물이고 조정에서 실제 연산군에게 간언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전말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외한

---

4) 이구의, 「嶺南 漢文學 資料集成의 事例와 그 意義-權泰乙 編『尙州漢文學』을 中心으로-」, 『대동한문학』45, 대동한문학회, 2015, 5~37쪽.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에 수록된 기사들은 권달수 사후 신원 추증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권달수 관련 기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1) 『燕山君日記』에 기록된 기사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권달수 관련 기사는 32건이다. 그 가운데 『연산군일기』 4권-27권에 기록된 7건의 기사는 연산 1년~3년 사이에 권달수가 연산군에게 신하로써 직언을 고하는 대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이들 7건의 기사 제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연번	기사 날짜	제목
1	연산 1년 3월 19일 임인 1번째 기사	대교 권달수 등이 명을 내릴 때에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참여하기를 이뢰다
2	연산 1년 7월 1일 임오 4번째 기사	정광국·기저 등이 불교의 폐해를 고하며 불경 박는 일을 파하기를 청하다
3	연산 1년 7월 17일 무술 3번째 기사	예문관 봉교 기저 등이 삼공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노사신을 치단하기를 상소하다
4	연산 1년 7월 18일 기해 2번째 기사	예문관 봉교 기저 등이 노사신의 간사함을 밝히고 죄를 내리기를 바라다
5	연산 2년 6월 19일 갑오 8번째 기사	예문관 봉교 권달수 등이 폐비의 존숭 문제를 상소하다
6	연산 3년 9월 22일 경신 2번째 기사	장령 조형 등이 대비가 능에 참배하는 일과 한충인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7	연산 3년 9월 23일 신유 3번째 기사	장령 조형 등이 왕의 사냥 일에 대해 논하다

위의 〈표1〉에서 확인되듯이 연산군 초기에 권달수는 ‘전교시 사관 참여 요청을 아뢰거나’, ‘불경 박는 일을 파하길 청하고’, ‘노사신의 처단’이나 ‘폐비 존숭 문제’를 상소하는 등 신하의 직분에 따라 임금에게 간언하는 데 충실하였다. 동계는 정치적 사안이나 여타 사건에 대해 자산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로 인해 권달수는 연산군 3년에서 9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관직을 제수받았다. 이는 연산군 초기에 권달수가 신하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로 인해 일정부분 신임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래 기사에서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경연에 납시었다. 강하는데 李泌이 사직하기를 요청했으나 황제가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필이 말하길 ‘폐하께서 지금 신의 자리에 드셨는데도 오히려 감히 청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다른 날 향안 앞에서 이겠습니까? 폐하께서 지난날에 신을 대우하기를 그와 같이 하셨지마는 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오히려 거리낌 없이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侍讀官 權達手가 아뢰길 ‘肅宗은 이필의 집에 나아가서 술을 마셨고, 자리를 같이 하여 누웠으니, 그 군신간에 서로 만남이 천고에 드문 일로서, 생각이 있으면 꼭 아뢰어 어려움은 없을 터인데도, 이내 말하기를 오히려 거리낌없이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군주는 마땅히 너그럽게 포용한 뒤에라야 사기가 펴져서 그 말을 능히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sup>5)</sup>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권달수는 군주를 위해 간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다. 동계의 이러한 자세는 신하가 군주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직분에 따라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계를 비롯한 사림들의 태도라 보아도 무방할 것인데, 이 시기까지

5) 『燕山君日記』48권, 연산 9년 1월 16일 갑신 2번째 기사, “御經筵 講至李泌求去, 帝不聽. 泌曰: ‘陛下今就臣榻, 猶不得請, 況異日香案之前乎? 陛下曩日, 待臣如此, 臣於事, 猶有不敢言者.’ 侍讀官權達手曰: ‘肅宗就泌飲酒, 同榻而臥, 其君臣際會, 千古罕有, 有懷必啓, 宜無難也. 而乃曰: 猶有不敢言者, 臣之進言, 其難如此, 人君當曲賜優容然後, 士氣得舒, 而能盡其言.’”



는 군주인 연산군이 신하들의 간언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 사이에 별다른 무리나 이견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산군 10년을 기점으로 폐비 윤씨의 추송 문제와 관련하여 임금의 기대를 달리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동계는 참화를 당하게 된다. 참화 당시의 사정은 아래 기사를 통해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권달수의 照律案을 내리며 이르기를, ‘추송하는 절차가 예에 이미 극진하게 되었으니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한 이와 같은 議啓는 진실로 잘못이다. 대체로 사람이 비록 謫仙의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로 불초하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조율을 고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조율을 고쳐 권달수·김세필은 죄를 참형에 해당시키고, 최숙생·이행은 장 1백에 처하여 먼 외방에 종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각각 장 1백 流三千里의 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즉시 형을 집행하되 백관을 참관시키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달수와 세필은 비록 죄가 같아 할지라도 달수가 수범이니, 세필은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외딴 섬에 종으로 삼도록 하고, 또 세필 등 13인의 홍패를 추탈하라.’ 하였다.

달수는 함창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는데 꾸미기를 일삼지 아니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겨 하며, 기질이 坦蕩하여 큰 뜻이 있었다. 장차 죽음에 당하여 같이 수감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술을 가져다가 나의 길을 전송해 주어야 하네.’ 하였는데, 말이나 모양이 평시와 같았었다. 그 아내 정씨도 절조가 있어 장례를 마치자 먹지 않고 죽었다. 이때 죄없이 죽은 자를 더러 그 처자를 종 삼으므로 분주하게 역사에 나가지 않는 자가 없어 절의를 스스로 지킨 사람이 드물었는데 홀로 정씨와 대사간 姜訥의 처 김씨만 절의를 지키다 죽었다.<sup>6)</sup>

6) 『燕山君日記』56권, 연산 10년 12월 2일 무오 3번째 기사, “下權達手照律案曰：‘追崇之典，於禮已極，無以復加。如此議啓，固爲非也。夫人雖有謫仙之才，而心苟不肖，則將焉用之？其令改照律。’義禁府改照權達手金世弼罪當斬，崔淑生李荇決杖一百，遠方爲奴，餘各決杖一百，流三千里，傳曰：‘即令行刑，百官序立。’又傳曰：‘達手世弼雖同罪，而達手爲首，世弼特減死，絕島爲奴。且世弼等十三人，追奪紅牌。’達手咸昌人，善屬文，不事修飾，好古樂善，氣節坦蕩有大志。將死，語同囚諸友曰：‘君等宜取酒餞我歸。’言貌如平時。妻鄭氏有節操，收葬畢，不食而死。時無罪誅戮者，或孥其妻子，莫不奔走就役，鮮有以節義自持，獨鄭氏與大司諫姜訥妻金氏死之。”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계는 폐비 윤씨의 추송 문제와 관련하여 예가 이미 극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산군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예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때문에 이미 내려온 조율안이 수정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며, 결국 동계는 참형을 맞이하게 된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동계의 인물 특징은 ‘謫仙之才’와 ‘氣節坦蕩’으로 집약된다. 동계에 대한 인물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재주와 선비 정신을 내면에 온축하고 있었으며,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동계의 내면에 담겨진 정신세계의 발양이 총체로써 유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도 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계만의 것이 아닌 아내인 정씨에게도 공히 간취되는 부분이었다. 내외간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기에 역사서의 기록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기술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 2) 『中宗實錄』과 『英祖實錄』에 기록된 기사

앞서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기사들과 비교하여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에 기록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의 기사들은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기사들과는 달리 권달수와 그의 아내인 鄭氏의 절의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기술되고 있다.

- ㉔ 강증진이 아뢰기를, “폐왕 때 만조의 군신이 모두 거짓을 따라 구차스럽게 영합하였으되, 유독 金處善은 직언하다가 죽었고, 權達手의 아내는 정조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을 포상하여 土風을 장려하소서. 즉위하신 처음에 마땅히 선을 포상하고 악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청컨대 그 방을 파하고, 그 사람을 내쳐서 사슴을 새롭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았다.<sup>7)</sup>

7) 『中宗實錄』1권, 중종 1년 11월 24일 기해, 1번째 기사, “仲珍曰：‘廢王之時，滿朝群臣，皆諂隨苟合，獨金處善以直言死，權達手妻，以貞烈死，如此之人，可褒獎，以勸土風。

㉔ 전교하기를, “헌납 康仲珍이 아뢰 바 있던 교리 권달수의 아내 정씨의 일을 다시 물어 아뢰라.”하였다. 중진이 아뢰기를, “정씨는 남편이 被誅됨을 듣고, 상주에서 함창 고모의 집에 왔는데, 그 고모가 죽을 권하니,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느냐?’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죽었습니다.”하였다.<sup>8)</sup>

㉕ 그의 아우 권달수는 剛毅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廢朝 때 바른 말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당하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그의 아내 정씨도 행실이 어질었는데, 남편의 불행을 듣고 굶다 죽었다. (중략) 한 마을에 살며 같이 지내는 정희량 같은 사람은 항시 그의 아우 권달수와 사이 좋게 지냈는데 이 사람은 그다지 허여하지 않았고, 그가 깊이 사귀어 사람을 이행의 무리였다.<sup>9)</sup>

㉖ 한선제가 무제를 높여 世室로 하려 할 때에는 하후송이 그 무력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배척하였고, 我朝의 일로 말하면 심대부·유계 등이 추송하는 일을 힘껏 간쟁하고 연산군이 私親을 추존할 때에는 권달수가 힘껏 간쟁하다가 화를 입었는데, 이것은 곧은 절의입니다.<sup>10)</sup>

위의 예문 ㉔~㉖는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에 수록된 권달수 관련 기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먼저 앞선 ㉔, ㉕, ㉖ 3개의 예문은 『중종실록』에 실린 기사로 내용은 권달수의 아내인 정씨가 남편이 죽자 자신 역시 곡기를 끊고 남편을 따라 죽은 기절을 표창한 것이 핵심에 해당된다. 그리고 ㉖의 기사는 『영조실록』에 수록된 것으로 주장 자리에서 참

卽位之初, 宜褒善貶惡. 請罷其榜, 黜其人, 以新士習.’ 不允.”

8) 『中宗實錄』1권, 중종 1년 11월 28일 계묘, 1번째 기사, “傳曰: ‘獻納康仲珍所啓校理 權達手妻鄭氏事, 更問以啓.’ 仲珍啓曰: ‘鄭氏聞夫被誅, 自尙州來于咸昌姑家, 其姑勸以粥, 答曰: 吾夫已死, 生而何爲? 勺水不入口而死.’”

9) 『中宗實錄』27권, 중종 12년 1월 22일 무술, 4번째 기사, “其弟達手, 剛正強項人也, 多直言於廢朝, 竟被殺, 至今士林惜之. 其妻鄭氏, 亦有賢行, 聞夫不幸, 不食而死. (중략) 同里閨交游, 如鄭希良, 常好其弟達手, 而不深許此人, 其所與深交者, 李荇之徒. 後來議敏手者謂: ‘氣宇沈固, 未嘗以好惡喜怒示人, 人不測其中’ 云.”

10) 『英祖實錄』12권, 영조 3년 7월 19일 계유, 4번째 기사, “漢宣欲尊武帝爲世室, 則夏侯勝斥其窮兵黷武. 以我朝事言之, 沈大孚、俞榮等, 以追崇事力爭, 燕山追尊私親, 則權達手力爭被禍, 此則直節也.”

찬관 송인명이 윤지술을 정몽주와 육신에 견주어 배향하려는 영조의 명에 대해 지나치다고 주장하면서 절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권달수를 예로 든 것이다. 『중종실록』과 『영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권달수와 그의 아내인 정씨의 행동이 절의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절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된 당대의 시각이 엮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영조실록』의 기사는 윤지술의 행동을 정몽주와 육신과 동일한 절의로 보려는 군왕의 시각과 이것이 지나치다는 신하의 의견 대립이 그려지며, 신하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근거로 동계를 절의의 상징으로 거론한 것이다.

정몽주나 육신은 대표적인 절의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그들의 절의는 자신이 섬기던 국가와 군주에 대해 변치 않는 절개와 의리를 죽음으로 표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지술을 정몽주나 육신에 견줄만한 절의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계의 절의는 정몽주나 육신의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國朝寶鑑』 등 관찬 문헌에도 권달수 관련 기록이 아래와 같이 실린 게 확인된다.

[인물] 권민수,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권달수, 민수의 아우이다. 기개와 절조가 있었다. 급제하여 벼슬이 홍문관 교리에 이르렀다. 연산 조에 연사로 연좌되어 피살되었다. 지금 임금[중종]이 즉위하여 도승지를 추증하였다.<sup>11)</sup>

【열녀】『신증』 정씨, 고려 권달수의 아내이다. 연산 갑자년에 달수가 피살되었는데, 정씨가 그때 함창 촌집에 있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입에 넣지 않은 지 무릇 60여 일에 그 종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은 남편의 유해가 돌아와 장사하기를 기다려서 뼈를 그 곁에 의탁하려 했더니, 기력이 이미 다하였으니 내가 죽을 것이다.”하고 통곡하다가 운절하였다. 지금 임금 2년에 정려하였다.<sup>12)</sup>

11) 『新增東國輿地勝覽』24권,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權敏手, 登第官至大司憲, 權達手, 民手之弟, 有氣節, 登第官至弘文館校理, 燕山朝坐言事被殺, 今上卽位贈都承旨.”

위의 예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권달수와 아내인 정씨와 관련된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인문지리서인 관계로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명승과 인물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의 모든 인물과 지리 정보를 집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징적 국면에 집중하여 군더더기는 삭제하고 핵심만 오롯이 기록하는 서술 특징을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은 동계 부부의 절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기록의 관점에서 권달수 부부를 조명할 때 주안점을 둔 것이 절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의 양상이 역사서와는 달리 필기집에서는 어떻게 반영, 표출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 2. 筆記集에 포착된 桐溪

동계 권달수와 관련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기술된 것 뿐만 아니라, 동시대나 후대의 문인에 의해 편찬된 문헌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른바 필기잡록에 수록된 동계 권달수와 관련된 기록이 그것이다. 필기잡록에 수록된 동계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식적인 역사서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것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야사적 성격이 두드러진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동계에 관련된 이해의 편폭을 심화, 확장시키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권달수의 기록이 수록된 문헌으로는 金安老(1481~1537)의 『龍泉談寂記』, 李廷馨(1549~1607)의 『東閣雜記』, 魚叔權(미상)의 『稗官雜記』,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 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몇 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金安老의 『용천담적기』에 수록된 동계 관련 일화가 주목된다.

12) 『新增東國輿地勝覽』28권, 「慶尙道」, 〈尙州牧〉, “[烈女] [新增] 鄭氏, 校理權達手妻, 燕山甲子達手被殺. 鄭氏時在咸昌村舍, 食飲不入口者, 凡六十餘日, 語其婢曰, 忍活至今者, 待夫骸, 還葬托骨其側, 氣力已盡, 吾其死矣. 痛哭而絕, 今上二年旌閭.”

권통지는 이름이 달수로 일찍이 급제하여 교리가 되었다. 연산군이 윤서인의 사당을 세우는 일을 의논할 때, 크게 위엄을 떨쳐서 신하들의 입을 막으니 연산군이 하고 싶은 일을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였다. 권통지가 분개하여 의논하기를 선왕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홍문관 사람들도 그 말에 이의가 없었다. 연산군이 노하여 그들을 매질하여 귀양보내고 오랴수록 노기가 더 심해져서 홍문관이나 대간 중에 그 의논을 처음 제창한 사람을 극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지난 일을 소급하여 문죄하는데 제창한 사람을 지적함이 날로 혹독하였다. 모두들 먼저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죽은 사람의 묘를 파고 시체를 찢게 하고 자기만 구차히 면하려고 하는데, 권통지 혼자만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였다고 복죄를 하여 죽은 동료들을 저버리고 자신만 살려고 피하지 않아 대간의 먼저 발론한 자와 함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옥리가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둘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 사람은 사는 것이 옳지 않은가.”하였다. 대간이 되었던 사람이 옥리의 뜻을 받아들여 홍문관이 대간보다 먼저 발언하였다고 하니, 권통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과연 나를 본받아서 한 일인가.”하고, 곧 붓을 빼앗아 공술하기를, “불초 신 달수가 한 것이니, 구차하게 숨겨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였다. 공술을 끝내고도 안색이 변함이 없고, 술을 주니 서서 다 마시고 사형을 받으면서도 평상시와 변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처음 권통지는 용궁현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잡혀올 때 영선리에 있는 집을 지나다가 가족들과 영결하였다. 그때 내가 함녕촌에 살고 있어 술 한 병을 들고 가서 술을 권하니, 권통지가 한 잔 가득히 들이마시고는 나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예전부터 간신들이 임금을 부추겨 악을 인도해서 선비들을 죽이도록 한 자들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전한 것이 있는가. 내가 죽지만 눈을 빼서 달아 두고 보게 하라.”하는데, 말이 강개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셨다. 권통지가 죽으니 그 미망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성조에 와서 권통지에게 관작을 추증하고 미망인은 열부 정려를 세웠으니, 절개와 의리가 짝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음습·모습·의지·기개가 훤히 나의 눈에 어른거리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심히 애통할 뿐이다.<sup>13)</sup>

13) 金安老, 『龍泉談寂記』, “權通之名達手, 早上第爲校理. 燕山主議尹庶人立廟事, 大作威鉗下, 主所欲莫敢忤. 通之慨然, 議以非先王意, 館中不敢異. 主怒皆杖流, 久而怒彌甚. 玉堂臺諫中首其論者, 將極法之. 時追治舊事, 仇摘倡言者日滋酷. 例皆旁推先死, 剖發朽壤以苟免獨通之自引伏, 不爲負亡僚自活計, 并臺員先發者, 鐵鑕已具. 獄吏哀之曰: ‘與其兩死, 寧歸之一而一生之.’ 爲臺者候承吏旨, 更言玉堂先於臺, 通之張目熟視曰: ‘某乎某乎! 爾果效我而爲之耶?’ 卽奪筆書供曰: ‘不肖臣達手敢爲之, 不可苟隱’

위의 예문은 『大東野乘』에 수록된 김안로의 『용천담적기』 일화 가운데 동계 권달수와 관련된 것이다. 위의 일화는 동계의 생애에서 가장 특징적 국면이었던 폐비 윤씨의 추송 문제로 인해 귀양 보내지던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권달수와 김안로가 직접 대면하여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김안로가 상주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권달수와 집안 간에 인척 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김안로가 서술한 권달수 관련 일화는 사실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권달수의 비극성과 비장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임금을 부추겨 악을 인도해서 선비들을 죽이도록 한 자들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전한 것이 있는가. 내가 죽지만 눈을 빼서 달아 두고 보게 하라.’는 동계의 서술 퍼런 전언이 김안로를 통해 『용천담적기』 일화에 기술됨으로써 동계의 비분강개가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후대에 편찬된 권달수 관련 기록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용천담적기』의 경우 역사서의 수록된 자료를 제외한 것 가운데 권달수와 관련된 기록으로 초창기 자료에 해당된다. 후대에 편찬된 권별의 『해동잡록』과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은 그 출전을 『용천담적기』라 적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김안로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용천담적기』의 기록은 동계 관련 일화 가운데 초기적 형태이자, 비교적 당시 동계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다른 필기집에서는 동계가 다른 인물의 일화 속에서 소환되어

---

以偷生.’ 供畢顏色不變，與之酒，立盡吸，就刑如平常，人莫不嘆傷之。初通之謫在龍宮縣，被拿而歸也，歷訣家累于永純里。余在咸寧村，挈壺酒往省之，通之引滿健倒，執余手曰：‘自昔讒姦慝逢惡，屠宰士類者，寧有終保乎？我則死矣，亦當扶眼而觀之矣。’辭氣慷慨，因泫然，傍坐皆泣下霑襟。通之既不幸，其未亡人泣血不食死。聖朝贈通之爵，旌烈婦門，可謂節義成雙者矣。其聲容意氣，森爽在目，思之不覺摧心而傷骨也。”

서술되기도 한다.

용재 이행이 연산 갑자년에 거제에 귀양가 있으면서 친구 중에 살아 있는 이와 죽은 이들을 생각하여 절운 10수를 짓고 각각 주석을 붙였는데, 시는 아래와 같다.

橫衝白刃獨能前  
天遣妖氛翳日邊  
半夜夢魂如夙夕  
數行清淚濕寒氈

흰 칼날 중횡하는데 홀로 앞으로 나가니  
하늘에 요사한 기운 남아 태양을 가리네  
한 밤중에 꿈속에 흔히 평일과 같아  
맑은 눈물 두 자락 흘러 찬 담요를 적시네

권달수 통지가 갑자년 겨울에 나와 함께 두차례 옥에 갇혀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 하루는 내 손을 잡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길 “해 밑에 흰 기운이 공중으로 뻗었는데, 자네도 보았는가?” 하였다. 내가 답하길 “보지 못했네.” 하였더니, 통지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한참 만에 말하길 “아아, 내가 죽겠지, 저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하더니, 12월 1일에 죽음을 당하였다. 근일 밤에 통지가 평소처럼 연달아 꿈에 보이므로 아올러 짓는다.<sup>14)</sup>

위의 예문은 이정형의 『동각잡기』에 수록된 용재 이행의 일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용재 이행이 거제에서 귀양시 친구들을 생각하며 절운 10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권달수를 생각하며 지은 시가 바로 위의 시이다. 시어의 운용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전반부의 ‘白刃’, ‘妖氣’와 같은 서늘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의상을 통해 비극적 감정을 고양시키다가, 후반부의 ‘清淚’와 같은 어휘를 통해 비극을 고귀함으로 전환시키며 마무리하는 전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시를 통해 그 사람의 생평을 관통하는 사상적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권달수가 처했던 상황의 삼엄

14) 李廷馨, 『東閣雜記』上, 「本朝濬源寶錄」, “李容齋荇, 燕山甲子, 竄配巨濟, 感念存亡, 作十絕, 各有註. 詩曰, (중략) 橫衝白刃獨能前, 天遣妖氛翳日邊. 半夜夢魂如夙夕, 數行清淚濕寒氈. 權達手通之, 甲子冬, 與余再繫獄, 拷掠備至. 一日, 拉余手指天曰: ‘日下有白氣亘空, 子亦見之乎?’ 余曰: ‘未也.’ 通之仰天良久曰: ‘噫! 吾其死矣, 正爲吾也.’ 十二月, 初一日, 被禍. 近夜, 連夢通之如平生, 故並及之.”



함과 강포함을 강조한 다음 그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나간 맑고 고귀한 절의를 부각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6권, 「燕山朝故事本末」, 〈甲子禍籍〉조에 권달수와 관련된 기록이 6개 항목 정도 정리되어 있다. 그 출전을 살펴보면, 『국조보감』, 『용천담적기』, 『명신록』, 『破睡篇』 등인데, 이 가운데 『파수편』에 기록된 내용이 앞선 권달수 일화와는 다른 이야기를 싣고 있어 흥미를 끈다.

공은 젊을 때 형 민수와 함께 상을 당하여 栗谷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에 여막을 짓고 있었다. 하루는 이안촌 자기 집에서 여막 있는 묘소까지 걸어가다가 退板峴 반석에서 조금 쉬었다. 이때는 마침 늦은 가을이었으므로 누른 곡식이 들판을 덮고 있었다. 민수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무개[某] 논둑[畦]에서 아무개 논둑까지 우리 집에 거두어 들인다면 편안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하니, 공은 “그 말이 무슨 말이나.”하고 침을 뱉고 일어났다. 뒤에 함께 연산주에게 베풀하였는데, 공은 교리로서 폐비를 종묘에 모시는 일을 논할 때 ‘일이 불가하다[事不可]’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사형당하였다.<sup>15)</sup> 『破睡篇』

위의 일화는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기는 하나 그 출전을 『파수편』으로 밝혀놓았다. 『파수편』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줄음을 깨는 글’이므로 소화의 성격이 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16)</sup> 즉, 권달수를 기록한 다른 문헌들과 서술 방향이 다를 것임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일화의 내용 전개를 살펴보면 ‘兄弟投金’ 일화와 같이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의 형태와 유사한 지점이 발견된다. 즉, 형제 사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되, 형제의 성격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부각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5) 李肯翊, 『燃藜室記述』 6권, 「燕山朝故事本末」, 〈甲子禍籍〉, “公少與兄敏手, 居憂廬于栗谷墓山. 一日自理安村舍, 步往廬所, 憩于退板峴盤石. 時方暮秋, 黃雲遍野, 敏手指點曰: ‘自某畦至某畦, 收入吾家則, 可能安坐而食.’ 公曰: ‘是何言也?’ 唾而起. 及共立廢主朝, 公以校理論廢妃祔廟事, 倡‘事不可’三字, 力諍被刑.”

16) 『파수편』에 대해서는 김준형, 『한국 패설문학 연구』, 보고사, 2004, 1~379쪽 참조.

일화의 서사 전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상을 당한 절망적 순간에 재물에 대한 욕망을 무심하게 발설하는 형과 물욕에 대해 헛된 마음을 먹고 있는 형을 비난하는 동생을 대비적으로 배치하는 설정을 통해 권달수란 인물의 성정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점은 일화의 출전이 『과수편』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편찬자는 권달수 일화를 기존의 것과 변별되도록 하기 위해 ‘형제의 대립’ 구도를 ‘소화’적 설정으로 수렴하여 인물 성격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을 통해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달수의 인물 성격이다. 여타 문헌에 기록된 권달수의 특장은 절의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헌과 구비전승을 통해 권달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접해본 독자의 입장에서는 인물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가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고정된 이미지와는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이미지와 다른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하여 균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수편』에 수록된 동계의 일화는 동계가 기존에 서술되고 회자된 충직한 선비라는 공적 대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식이자 동생이지만 더 형 같은 존재감을 지닌 사적 개인으로 동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부각된 동계의 형상은 여타 문헌에 수록된 것과는 달리 인정에 바탕을 둔 사적 개인으로 간취된다는 점에서 『과수편』의 지향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과수편』에 기록된 동계는 단형 서사지만 흥미요소를 가미한 笑話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사적 개인으로 포착된 형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 Ⅲ. 문헌기록을 통해 본 桐溪의 節義와 그 의미

동계의 삶은 주군의 不義에 죽음으로 맞서 간언한 충절의 표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일반적으로 선비의 삶이란 전통시대 유가 학습을 체

화하고 생활 속에서 복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때문에 선비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 특히 실천유학으로의 전이가 특히 중시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텍스트가 바로 『小學』이었다.<sup>17)</sup>

조선 전기 사림파에게 유가 학습의 실천이란 기치는 훈구대신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신적, 이론적 기반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말로만 떠드는 선비가 아닌 그들이 오랜 시간 학습해 온 유가경전의 기본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들의 정신자세와 수양의 표출이 사림파의 위상을 지탱하는 핵심이었던 것이다.

권달수는 이러한 사림파의 정신 지향을 실천으로 옮긴 대표적 인물이었다.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굳건히 지켜내고자 했던 절의 정신의 실천 양상은 그를 통해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자세와 실천 행위가 그의 삶을 후대에까지 표상하게 만든 핵심동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이러한 동계의 절의는 여말선초 鄭夢周(1337~1392)나 吉再(1353~1419)의 그것과 궤적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포은과 야은의 절의는 한 국가의 신하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포은과 야은은 여말선초라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살아간 선비로 시대적 흐름을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직감했기에 절의를 통해 저항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동계의 절의는 군주의 불의에 대해 간언하고 목숨을 던져서까지 신하로써 해야 될 의무를 신념의 형태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얼핏 동계의 절의는 포은이나 야은과 비교했을 때 비장함이나 엄숙함이 덜 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동계의 절의는 삶의 궤적과 신념에서 비롯된 실천적 행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계의 절의 실천은 그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동계가 밝아온 삶의 편린과 자취가 기록의 형태로

17) 조선초 『소학』의 유입과 주석 및 번역의 흐름과 양상에 대해서는 정호훈, 『조선의 『소학』-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1~349쪽 참조.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사후에 후손들이 선현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흩어진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나 그 양이 풍부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전하는 문집을 통해 동계의 삶의 전모를 온전하게 펼쳐 보이기엔 자료적 한계로 인해 부족함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동계와 동시대에 교류하면서 동지적 삶을 공유했던 용재 李荇(1478~1534)을 통해 동계의 삶을 일정부분이나마 추적해 볼 수 있다. 앞서 동계와 관련된 여러 문헌에서 이행은 가장 밀착된 인물로 등장했다. 용재는 동계의 묘지명을 찬술한 바 있는데, 용재의 묘지명<sup>18)</sup>을 통해 동계가 걸어온 삶의 핵심적 국면에 접근할 수 있다.

용재의 묘지명에서 권달수와 그의 아내 정씨는 ‘節義’로 현창되는 당대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엄혹한 삶의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목도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 동계의 행동을 절의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계의 절의 정신은 문집에 수록된 여타 문인의 글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尹春年(1514~1567)에 의해 작성된 〈碑銘陰記後敘〉이다. 특히 윤춘년의 작품은 윤춘년이 취했던 행동으로 인해 그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윤춘년은 문학사에서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저작물을 간행한 인물로 주목되는데, 하필이면 윤춘년이 주목한 인물이 매월당일까?

매월당은 주지하듯이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단종복위를 꿈꾸던 절의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 윤춘년은 그러한 매월당을 존숭하였고, 그 결과 김시습의 『遊關西關東錄』을 간행하고 서문을 썼으며, 문학사의 기념비적 저작인 『金鰲新話』를 간행하는 등 매월당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sup>19)</sup>

윤춘년이 공히 관여된 두 인물인 매월당과 동계의 공통점은 당대에서 절의의 상징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본다면 윤춘

18) 李荇, 『容齋集』, 「權通之夫人某氏合葬誌銘」

19) 윤춘년에 대해서는 안대희, 『尹春年과 詩話文話』, 소명출판, 2012, 1~96쪽 참조.

년이 동계의 비명에 대한 후서를 남긴 것 또한 동계를 절의의 상징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동계의 특징적 형상으로 절의를 주목하고 각종 문헌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당대를 살아가던 선비가 시대를 마주하던 방식의 일단을 보여준 것에 해당된다. 개인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피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인물을 추동하게 만든 것은 인물이 살아 숨쉬던 시대란 환경이었으며, 동계는 그것을 거부하려 들지 않았다. 온전히 마주 대했고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계의 삶과 그 의미는 문헌기록으로 남겨져 조명받을 수 있었다.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동계 권달수에 대한 문헌기록을 통해 절의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재의 삶은 그다지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이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그러한 생의 조건을 마주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어떻게 삶을 조직하고 실천으로 옮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동계와 절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산생된 일종의 時雨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동계의 願望과는 상관없이 걸어온 삶의 궤적에서 학습된 유가정신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계 스스로 본인의 자세나 지향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회의가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역할만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삶을 가끔은 회구했을지도 모른다. 그 역시 국가의 신하이긴 하나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아들이라는 여러 가지 역할이 동시에 주어진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그렇듯 괴리를 가지기 마련이며 동계의 삶

은 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논란의 핵심으로 그를 추동케 하였고 동계는 그것을 거부하려 들지 않았다. 동계의 삶의 대한 태도는 아내인 정씨에게까지 영향이 미쳤으며, 아내 또한 남편과 함께 정신적 공유를 바탕으로 같은 길을 걸었다. 훗날 동계와 아내의 삶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 인정받았으나 두 사람의 행동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본고는 과거 선현의 삶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며 어떠한 울림을 주는지 타진해 보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 역사적 인물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일단을 추체험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방식과 지향이 변화를 맞게 된다면 과거와의 조우는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존재하게 된다.

본고는 동계 권달수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그 일단을 찾아보고자 했다. 물론 우리가 꼭 선현과 같은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쩌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질곡이 선현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더 많아 보이기에, 마음의 위안이나 안정을 위한 통로로 과거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溫故知新이라는 성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사람은 살았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지혜로 헤쳐 나갔다.

본고는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해 드러난 동계 권달수의 절의와 그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 조명되지 못한 인물이 도처에 존재한다. 남겨진 문헌 기록을 통해 그러한 인물을 발굴하고 생애를 조명하여, 삶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후속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權達手, 『桐溪先生文集』

權鼈, 『海東雜錄』

金安老, 『龍泉談寂記』

『大東野乘』

『續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魚叔權, 『稗官雜記』

『燕山君日記』

『英祖實錄』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廷馨, 『東閣雜記』

『中宗實錄』

경북대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1~613쪽.

權泰乙, 『尙州漢文學』, 상주문화원, 2001, 1~698쪽.

김준형, 『한국 패설문학 연구』, 보고사, 2004, 1~379쪽.

안대회, 『尹春年과 詩話文話』, 소명출판, 2012, 1~96쪽.

이구의, 「嶺南 漢文學 資料集成의 事例와 그 意義－權泰乙 編 『尙州漢文學』을 中心으로－」, 『대동한문학』45, 대동한문학회, 2015, 5~37쪽.

전병철, 「『嶺南人物考』 진주편 등재인물의 시기별 특징」, 『경남문화연구소보』32,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011, 149~169쪽.

정호훈, 『조선의 『소학』-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1~349쪽.

한의승, 「『嶺南人物考』에 수록된 榮川지역 文人 研究」, 『한국선비연구』4,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6, 135~155쪽.

Abstract

## A Study of the Written Records on Dong gye, Kwon Dal-soo's Fidelity Principle and its Meaning

Han, Eui-soong

This paper investigates on a figure, Dong-Gae, Gwon dal soo(1469~1504), originated from sang-joo and not well recognized within the academia. Dong-Gae is hong mun gwan gyori who resisted against corrupted power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s king youn-san-goon and he was a symbol of integrity. This paper categorizes his works found in history book and Fil-gi-jip. And consideration is taken into how integrity, which could be regarded as special feature, developed through his work.

In case of historical records, there are 36 articles in 『Joseonwangjosillok』, 32 articles in 『Yeonsan Diary』, 3 articles in 『Jungjongsillok』 and 1 article in 『Youngjosillok』. It is mostly recorded the 『Yeonsan Diary』 and it shows the process from advising the king to get killed. Except for that, the articles in 『Jungjongsillok』 and 『Youngjosillok』 are mostly about discussions to measure up his personal information after his passing.

In case of notes Fil-gi-jip, records are found in 『yong-chun-dam-jok-gi』 by Kim, an ro(1481-1537), 『Dong-gak-jab-gi』 by Lee, jung hyung(1549-1607), 『Pae-gwan-jab-gi』 by An, suk gwon, 『Hae-dong-jab-rok』 by Gwon, byol(1589-1671), 『Youn-ryo-sil-gi-sul



』 by Lee, geng eik(1736-1806).

The common theme from those works are integrity. This could be identified from the memorial inscription. Especially the Dong-gae's attitudes towards life gave influences to his wife, Mrs. Jung, and her companionship with him functioned as power to throw their lives together. There is Dong-gae's spirit of integrity in the background to evoke these activities and it is like a type of a seasonable rain generated in the time of era. That is understood as practice of Seon-bi Spirit which is naturally exposed along the walk of life Dong-Gae took.

This paper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spirit of the times one pursued through various documentary records related to one figure. There are still figures that haven't been found and shown to the world yet. It is still valid to shed light on those figures and life-long practices through records in the past. Finding new figures and their values are expected through further research work.

**keywords :**

Dong-gye Kwon, dal-soo, literature record, shape, history book, fil-gi-jip, integrity

